

사중삼매의 성립과정

聖雨(徐潏烈)

布教社會學科 教授

필자는 천태의 사중삼매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천태지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대지도론의 삼매사상을 검토하였다. 『대지도론』에는 삼매를 비롯한 선·정의 의미를 명백히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타 이래의 모든 삼매 수행법을 성문법중삼매와 마하연법중삼매로 구분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삼매를 백팔삼매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중삼매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혜사의 저술과 실천수행법을 살펴보았다. 『제법무쟁삼매』에는 『대지도론』에 나타난 삼매의 명칭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상좌삼매를 비롯한 모든 삼매의 형태를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자의삼매』에는 수자의삼매를 비롯한 반주삼매와 법화삼매, 그리고 사중삼매의 기본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4종신위의와 식위의·어위의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법화경안락행의』에서는 주로 법화삼매를 유·무상행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천수행법에서는 상좌삼매를 외형적 근간으로 삼고, 법화삼매와 방등삼매, 수자의삼매와 반주삼매 등 많은 삼매수행법을 단편적으로 교시할 뿐, 4중삼매라는 명칭만큼은 대두하고 있지 않으므로 4중삼매의 성립상 과도기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천태는 『대지도론』과 혜사의 삼매사상에 영향을 받고, 이를 직접 실천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천태산 입산이후 생의 후반기에 이르러 모든 삼매의 형태를 외형적 측면에서 분류·통합하여 마침내 사중삼매로써 성립시켰던 것이다.

사종삼매의 성립과정

聖雨(徐潁烈)
布教社會學科 教授

I. 들어가는 말

II. 사종삼매의 성립과정

1. 대지도론의 삼매사상
2. 혜사의 삼매사상
3. 천태 초기의 삼매사상

II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천태 삼대부 가운데 『마하지관』은 『법화경』의 실천수행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대미문의 수행지침서 내지는 교관쌍미의 극치를 설한 불멸의 지관수행법으로 평가된다. 이런 『마하지관』의 5략 가운데 제2수대행에 사종삼매의 행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4종삼매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법에 관하여 천태 이전의 대소승 경론에 서는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사종삼매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그 구체적 행법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 천태지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4종삼매는 천태가 최초로 고안한 수행법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을 천태가 최초로 창안한 수행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경론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실이나 잡설로 취급해버리는 중차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4중삼매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단편적이거나 『대지도론』에 나타난 삼매사상을 비롯하여 혜사의 저술서와 실천수행법, 그리고 천태의 전기 저술서와 실천수행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사중삼매의 성립과정

1. 대지도론의 삼매사상

대승경전의 출현 연기는 삼매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반야경은 등지(삼매)왕삼매, 법화경은 무량외처삼매, 열반경은 부동삼매, 화엄경은 해인삼매 등이 설시(說時)에 등장한다. 이것은 대승경전의 저작자들이 깊고 깊은 삼매 가운데 들어갔을 때, 불타의 심중과 완전히 합치되어 저작되었음을 암시한다. 모든 대승경전의 기본사상이자 공통사상인 공의 이해나 득지 방법이 삼매를 떠나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삼매의 상태에서야만 일체 존재의 올바른 공성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 견지에서 대승 경론 등은 삼매를 설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1) 삼매의 의미

천태지의의 사중삼매 성립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나가르주나의 유명한 논서로 여겨지는 『대지도론』에서는 삼매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대지도론』 권제100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곧 제법등제삼매를 체득하여 구절 구절을 해석하고, 산란한 마음 가운데 다만 지혜가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하지 않는다. 마음을 모아 흩어지지 않게 하면 지혜가 변하여 삼매를 성취한다.)¹⁾

이와 같이 삼매는 선정을 수행하여 체득되는 지혜를 의미한다. 천태대사도 samatha를 止

1) 卽得諸法等諸三昧句句解說。散亂心中但有智慧不名三昧。今從師聞已一心思惟名爲三昧。攝心不散智慧變成三昧。(大正藏25, 753中)

로 명명하여 선정에 의해 관득된 지혜로 간주하였다. 『소지관』으로 불리우는 『修習止觀坐禪法要』에서 종가입공관·중공입가관·중도제일의관의 三觀을 止에 적용시켜 體眞止·方便隨緣止·息二邊分別止의 三止를 수립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²⁾ 체진지는 공의 진리를 체득하여 그곳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이 때는 一切智(道慧)를 체득한 단계에 해당된다. 방편수연지는 교묘한 방편으로서 현실(假)의 모든 모습에 수연하여 그곳에 머무는 것이다. 즉 道種智(道種慧)를 체득한 위치에 해당된다. 식이변분별지는 空과 假의 양면을 분별하는 것을 멈추고, 어느 곳에도 집착하거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바로 一切種智(一切種慧)를 통달한 단계에 해당된다. 더욱이 『점차지관』으로 불리우는 『석선바라밀차제법문』에서는 “삼매 내에 마음의 지혜가 밝고 날카롭고”³⁾라든지, “수행자는 삼매에 원력과 지력이 들어 있고”⁴⁾라고 기술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물론 삼매의 수행방법을 설명할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천태대사 역시 『대지도론』의 경우와 동일하게 삼매의 의미를 선정의 수행을 경유하여 체득되는 지혜로 관별했다고 볼 수 있다.

2) 삼매의 범주

삼매에는 선정수행을 통해서 체득된 지혜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면, 삼매의 범위는 어디까지 한정되는가 하는 범주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가르주나의 저서로 알려진 『십주비바사론』 권제11에는 三昧를 禪과 定·解脫과 명백히 분류한 뒤, 다음과 같이 선·정·해탈·삼매가 모두 선바라밀에 포섭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선·정·해탈·삼매로써 번뇌를 깨끗이 하는 모양을 실답게 안다. 선이란 사선, 정이란 사무색정·사무량심 등 모두 정이라고 부른다. 해탈이란 팔해탈이고, 삼매란 모든 선과 해탈, 나머지 정을 제외한 모든 삼매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세 가지 해탈문 및 유각유관정, 무각유관정, 무각무관정을 삼매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정은 작고 삼매는 큰 까닭에 일체의 불보살이 얻은 정을 모두 삼매라고 한다. 이 네 가지가 다 일체 선바라밀에 포섭되어 있다.⁵⁾

2) 大正藏46, 472中~下

3) 於三昧內心慧明利(大正藏46, 532上)

4) 行者於三昧內願智之力(大正藏46, 532下)

5) 佛於禪定解脫三昧垢淨相如實知. 禪者四禪. 定者四無色定四無量心等皆名爲定. 解脫者八解脫. 三昧者除諸禪解脫除定盡名三昧. 有人言. 三解脫門及有覺有觀定. 無覺有觀定. 無覺無觀定. 名爲三昧有人言. 定小三昧大. 是故一切諸佛菩薩. 皆名三昧. 是四處皆攝在一切禪波羅蜜(大正藏26, 82下)

특히 『대품반야경』의 주석서인 『대지도론』 권제28에서는 『십주비바사론』 권제11보다 선과 정, 그리고 삼매를 명백히 분별하여 설하고 있다.

또다시 일체 선정을 또한 정이라고 하며, 또한 삼매라고 한다. 사선을 또한 선이라고 하고, 또한 정이라고 하고, 또한 삼매라고 한다. 사선을 제외한 나머지 정을 또한 정이라고 하고, 또한 삼매라고 하지만 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십지 가운데 정을 삼매라고 이른다.⁶⁾

즉, 선이라고 부를 때는 사선만을 지칭하지만, 이 사선을 증득하였을 때는 정이나 삼매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선을 제외한 정을 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십지 가운데 정은 삼매로 규정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권의 앞과 뒷 구절에서는 모든 경전 가운데 설되어 있는 삼매를 성문법중삼매문과 마하연법중삼매문 두 가지로 분류하여 자세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모든 삼매문이라는 것에는 두 종류의 삼매가 있다. 성문법중삼매와 마하연법중삼매이다. 성문법중삼매라는 것은 소위 삼삼매, 다음에 세 가지 삼매 즉 공공삼매, 무상무상삼매, 무작무작삼매, 그 다음에 세 가지 삼매가 있으니 유각유관·무각유관·무각무관이다……이와 같은 모든 삼매들을 아비담 가운데 널리 분별하여 설했다……마하연법중삼매라는 것은 수능엄삼매로부터 허공제무소착해탈삼매에 이르고, 또한 견일일체불삼매 내지 일체여래해탈수관자자번신 등과 같은 무량아승지보살삼매이다……이와 같은 법이 성문법중삼매문이다. 마하연법중삼매문은 선바라밀의 뜻 가운데 모든 삼매를 분별하여 널리 설한 것과 같다.⁷⁾

바로 전자는 아비담장 중에 널리 설해져 있는 空·無相·無願의 三三昧와 有覺有觀·無覺有觀·無覺無觀 등의 모든 삼매를 말한다. 그리고 후자는 수능엄삼매로부터 무량아승기보살의 모든 삼매를 가리키는데, 선바라밀의 뜻 가운데 삼매를 구체적으로 설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지도론』 권제47에서는

- 6) 復次一切禪定亦名定名三昧。四禪亦名禪亦名定亦名三昧。除四禪者餘定亦名定。亦名三昧不名爲禪。十地中定名爲三昧(大正藏25, 268中)
- 7) 諸三昧門者。三昧有二種。聲聞法中三昧。摩訶衍法中三昧……如是禪波羅蜜義中諸三昧分別廣說(大正藏25, 268中~269上)

위의 십팔공을 반야바라밀로 해석한다. 지금 백팔삼매로써 선바라밀이라고 해석한 다.⁸⁾

라고 하여, 모든 삼매의 종류를 백팔삼매로 한정하고, 백팔삼매가 선바라밀에 포함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선·정·해탈의 체득을 성문법중삼매, 대승불교의 삼매를 마하연법중삼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모든 삼매를 선바라밀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태지의 역시 제자 범신이 기록하고 다시 관정이 재치한 『차제선문』에서 『대지도론』에 나타난 모든 선·정과 삼매를 4종선으로 분류하고, 다만 방편에 따라 각기 명칭이나 범위가 다를 뿐, 이들을 모두 선바라밀로 포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천태지와 『대지도론』은 삼매의 범주를 무한대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3) 삼매의 종류

『대지도론』과 『차제선문』에서 선·정·해탈 등의 모든 수행방법을 삼매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면, 삼매의 구체적 종류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지도론』에 나타난 선·정·삼매의 명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명칭	대지도론	大正藏 권제25
1	삼십칠품	권제19	197중
2	삼삼매	권제20	206상
3	사선	권제20	208상
4	사무량심	권제20	208하
5	사무색정	권제20	211하
6	팔배사	권제21	215상
7	팔승처	권제21	216상
8	구차제정	권제21	216하
9	십일체처	권제21	216하
10	구상	권제21	217상
11	팔념	권제21 ~ 22	218하
12	십상	권제23	229상
13	십일지	권제23	232하
14	삼삼매	권제23	234상

8) 上以十八空釋般若波羅蜜. 今以百八三昧釋禪波羅蜜(大正藏25, 398下)

15	삼무루근	권제23	234중
16	십력	권제24	235하
17	사무소외	권제25	241중
18	사무애지	권제25	246상
19	십팔불공법	권제26	247중
20	대자대비	권제27	256중
21	육신통	권제11	138상
22	십육특승	권제28	264상

다음으로 천태 초기의 외관사 강설인 『차제선문』 수증장에 기술된 선·정·삼매의 명칭을 차례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명 칭	차제선문	大正藏 권제46
1	사선	권제5	508상
2	사무량심	권제6	516중
3	사무색정	권제6	520하
4	육묘문	권제7	524상
5	십육특승	권제7	525중
6	통명관	권제8	529상
7	구상	권제9	535중
8	팔념	권제9	537중
9	십상	권제9	538하
10	팔배사	권제10	540하
11	팔승차	권제10	543하
12	십일체처	권제10	545상
13	육신통	권제10	545상
14	십사변화	권제10	546중
15	구차제정	권제10	546중
16	삼삼매	권제10	547상
17	사자분신삼매	권제10	547하
18	초월삼매	권제10	548상

이상에서 천태는 『대지도론』에 나타난 선·정·삼매를 정선하여 차제선문에 응용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지도론』 권제47에서는 백팔삼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수능염삼매 · 보인삼매 · 사자유희삼매 · 묘월삼매 · 월당상삼매 · 출제법삼매 · 관정삼매 · 필법성삼매 · 필당상삼매 · 금강삼매 · 업법인삼매 · 삼매왕안립삼매 · 방광삼매 · 역진삼매 · 고출삼매 · 필구변제삼매 · 석명자삼매 · 관방삼매 · 다라니인삼매 · 무광삼매 · 섭제법해삼매 · 편복허공삼매 · 금강륜삼매 · 단보삼매 · 능조삼매 · 불구삼매 · 무주삼매 · 무심삼매 · 정등삼매 · 무변명삼매 · 능작명삼매 · 보조명삼매 · 견정제삼매삼매 · 무구명삼매 · 환의삼매 · 전광삼매 · 무전삼매 · 위덕삼매 · 이진삼매 · 부동삼매 · 불퇴삼매 · 일등삼매 · 월정삼매 · 정명삼매 · 능작명삼매 · 작행삼매 · 지상삼매 · 여금강삼매 · 심주삼매 · 보명삼매 · 안립삼매 · 보취삼매 · 묘법인삼매 · 범등삼매 · 단희삼매 · 도법정삼매 · 능산삼매 · 분별제법구삼매 · 자등상삼매 · 이자삼매 · 단연삼매 · 불괴삼매 · 무중상삼매 · 무처행삼매 · 이몽매삼매 · 무거삼매 · 불변이삼매 · 도연삼매 · 집제공덕삼매 · 주무심삼매 · 묘경화삼매 · 각의삼매 · 무광변삼매 · 무등등삼매 · 도계법삼매 · 분별제법삼매 · 산의삼매 · 무주처삼매 · 일장업삼매 · 생행삼매 · 일행삼매 · 불일행삼매 · 묘행삼매 · 달일체유저산삼매 · 임명어삼매 · 이음성자어삼매 · 단거삼매 · 정상삼매 · 파상삼매 · 일체종묘족삼매 · 불희고락삼매 · 무전상삼매 · 다라니삼매 · 섭제사정상삼매 · 멸증애삼매 · 역순삼매 · 정광삼매 · 견고삼매 · 만월정광삼매 · 대장업삼매 · 능조일체세삼매 · 삼매등삼매 · 섭일체유쟁무쟁삼매 · 불락일체주처삼매 · 여주정삼매 · 괴신쇄삼매 · 괴어여허공삼매 · 이착허공불염삼매⁹⁾.

이 중에 일행삼매의 명칭은 천태의 사중삼매 가운데 상좌삼매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지도론』에서는 이를 “어찌하여 일행삼매라고 하는가. 이 삼매에 머물면 모든 삼매 가운데 차안과 피안을 보지 않는다”¹⁰⁾고 단순히 설명되어 있다. 과연 불일행삼매는 상행삼매에 배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삼매에 머물면 모든 삼매 중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이를 불일행삼매라고 이름한다”¹¹⁾고 설하고 있다. 아울러 『대지도론』 권제89에 “염불삼매”¹²⁾의 명칭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성염불이나 청명염불이나에 따라 상좌삼매와 상행삼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각의삼매는 수자의삼매의 다른 이름인데, “이 삼매에 머

9) 大正藏25, 396中~下

10) 云何名一行三昧. 住是三昧不見諸三昧此岸彼岸. 是名一行三昧(大正藏25, 393中)

11) 住是三昧不見諸三昧一相. 是名不一行三昧(大正藏25, 398中)

12) 好修念佛三昧故(大正藏25, 753下)

물면 모든 삼매 가운데 칠각분을 얻게 된다. 이를 각의삼매라고 부른다”¹³⁾고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섭일체유쟁무쟁삼매는 혜사의 제법무쟁삼매에 배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대지도론』의 백팔삼매 가운데 나타난 일행삼매나 불일행삼매, 그리고 각의삼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천태의 견해와 차이를 보일지라도 사종삼매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점만큼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혜사의 삼매사상

『대지도론』 다음으로 천태의 사종삼매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은 혜사의 삼매사상이다. 이것을 검토하려면 가장 먼저 혜사의 저술 가운데 나타난 삼매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리고 실수(실천수행)상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1) 혜사의 저술서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혜사의 저서는 『제법무쟁삼매』·『수자의삼매』·『대승지관법문』·『법화경안락행의』·『남약사대선사입서원문』이 있다. 이 중에 『제법무쟁삼매』와 『수자의삼매』는 문자 그대로 제목 자체가 삼매이다. 특히, 『대품반야경』과 『대지도론』에서 제법무쟁삼매의 명칭은 무쟁삼매·무쟁행삼매·섭일체유쟁무쟁삼매, 수자의삼매는 각의삼매로 각각 기술되어 있다.

(1) 『제법무쟁삼매』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제법무쟁삼매』에 나타난 삼매의 명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총 19종이 나타나 있다.

13) 住是三昧諸三昧中得七覺分。是名覺意三昧(大正藏25, 398上)

차례	명칭	제법무쟁삼매	大正藏 권제46
1	백팔삼매	권상	627하
2	현일체색신삼매	권상	627하
3	보현색신삼매	권상	627하
4	선방편삼매	권상	629하
5	정계선정삼매	권상	629하
6	중생어언삼매	권상	631하
7	사자분신삼매	권상	632상
8	초월삼매	권상	632중
7	대지삼매	권하	634중
9	여허공삼매	권하	634중
10	월애삼매	권하	645상
11	제해탈편일체타심지삼매	권하	636하
12	타심지삼매	권하	636하
13	희각분신통삼매	권하	636하
14	타심지차별삼매	권하	637상
15	심염처수념처삼매	권하	637상
16	심염처여의신통삼매	권하	637중
17	일체정해탈삼매	권하	640중
18	법념처삼매	권하	640하
19	보살법자재삼매	권하	640하

이상과 같이 주로 『대품한야』와 『대지도론』에서 소개된 삼매의 명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천태의 사중삼매와 관련된 명칭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책은 천태의 사중삼매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제법무쟁삼매』 권상의 서두에는 일체불법 가운데 모든 삼매, 즉 『대지도론』에서 강조한 백팔삼매는 선정수행을 통해서 체득되며, 그 결과 신통력을 구축하여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선바라밀의 공덕이 성취됨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좌선의 실수를 누누히 역설하고 있다.

대지 일체불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깨끗한 계를 수지하고 선정을 근수해야 일체불법의 모든 삼매문·백팔삼매·오백다라니 및 모든 해탈·대자대비·일체중지·오안·육신통·삼명·팔해탈·심력·사무의·십팔불공법·삼십이상·팔십중호·육바라밀·삼십칠품·사홍서원·사무량심·여의신통·사섭법을 얻는다. 이와 같은 무량한 불법공덕은 일체다 선으로부터 일어난다. 왜냐하면, 지방삼체의 무량제불이 만약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설법할 때, 먼저 선정에 들어가 심력과 도종지로서 중생의 근기와 성품의 차별을 관찰하여 그 대치할 바를 알고 도의 인연을 연계 하고자, 법안으로써 상대를 관찰하기 때문이다…… 일시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설법한다. 다 이 선바라밀의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좌선하지 않으면 평지에 넘어 떨어진다.¹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법무쟁삼매』 권상에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반야와 일체지혜와 신통력 등이 모두 선정 중에 발현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좌선수행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물어 말하되,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경 가운데 반야와 모든 지혜가 선정에서 생ки한다고 하였는가. 답하여 말하되, 선정을 논(『대지도론』) 가운데 실한 바와 같이 삼승의 일체지혜도 다 선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였다. 반야의 논 가운데 또한 이와 같은 말이 있다. 반야는 선으로부터 일어난다…… 지방제불이 만약 설법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할 때, 먼저 선정에 들어가 신통력으로써 지방세계의 대지를 육중으로 진동케 하고…… 부처님이시여, 이 일체지인은 지혜자재하고 설법에 응하여 어떤 연유로 먼저 선정에 들어가고, 그 이후 설법을 하는데 그 모습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논에서 답하여 가로되, 여래의 일체지혜 및 대광명과 대신통력이 모두 선정 가운데 얻은 것이니, 부처님께서 지금 마하반야대지혜법을 설하고자 먼저 선정에 들어가 대신통력을 나투고 대광명을 풀어 일체지방 중생을 두루 비추는 것은 선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런 연후에 설법한다…… 다만 발심하여 좌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록 선정을 증득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일체 지방의 논사를 이겼으니, 하물며 선정을 증득한 자는 어찌 하겠는가…… 좌선을 부정하면 몸으로 법을 증득하지 못했으니…… 높은 마음으로 좌선하는 사람에게 가법고 교만하면 이러한 논사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지나…… 만약 어떤 사람이 선지식을 친근하지 않더라도 비록 좌선을 하여 사선정을 획득하면……

따라서 선바라밀의 공덕을 성취한 것이 삼매이며, 이러한 궁극적인 삼매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좌선, 즉 상좌삼매를 비롯한 모든 삼매의 형태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수자의삼매』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14) 大正藏46, 627下

『수자의삼매』에 나타난 삼매의 명칭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명칭	卍續藏經 권제98
1	염불삼매	687하
2	반주삼매	687하
3	묘법화삼매	687하
4	수자의삼매	687하,688상,691상,692상,706하
5	부동삼매	692상,693하,706하
6	편각삼매	692상
7	조명삼매	692상
8	무간삼매	696하
9	일입삼매	700하
10	금강벽정삼매	701하
11	평등삼매	703하
12	법성무명삼매	706하
13	무주삼매	706하
14	보당삼매	706하

이상과 같이 삼매의 명칭이 14종이나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수자의삼매부터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릇 모든 신발심보살이 육바라밀을 배우려고 하거나, 일체 선정을 닦고자 하거나, 삼십 칠조도품을 수행하거나, 만약 설법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대자비를 배우고, 육신통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속히 보살의 계위에 들어가 불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염불삼매·반주삼매 및 묘법화삼매를 배워서 구족해야 하는데, 이 모든 보살은 최초로 수자의삼매를 먼저 배워야 한다.¹⁵⁾

또한 본서에 열거된 반주삼매는 담연의 『지관대의』에서 “상행삼매는 반주삼매경에 나와 있다”¹⁶⁾고 지목되어 있기 때문에 상행삼매에 배정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본서의 목차는 ① 행위의품 ② 주위의품 ③ 좌위의품 ④ 면위의품 ⑤ 식위의중구

15) 凡是一切新發心菩薩欲學六波羅蜜修一切禪定欲行三十七品若說法教化衆生學大慈悲起六神通欲得疾入菩薩位得佛智慧先當具足念佛三昧般舟三昧及學妙法華三昧是諸菩薩最初應學先學隨意三昧(卍續藏經98, 687下)

16) 二常行出般舟三昧經(大正藏46, 459下)

족일체제상미품 ⑥ 어위의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④眠威儀品은 바로 臥威儀品을 지칭한다고 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①②③④는 행·주·좌·와의 위의를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③ 좌위의품에서는 행주좌와의 4종신위의중 좌선수행이 가장 편안한 자세에 해당되므로 부동의 가부좌를 취하여 일체의 모든 삼매문에 들어가 해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본서는 수자의삼매를 비롯한 상행삼매로 간주되는 반주삼매, 반행반좌삼매에 속하는 법화삼매와 좌선형태의 상좌삼매뿐만 아니라, 4種身威儀는 물론 식위의와 어위의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천태의 4종삼매의 성립에 일말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

(3) 『법화경안락행의』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법화경안락행의』에는 대승돈각, 즉 원교의 입장에서 법화삼매를 비롯한 총 4종의 삼매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거론되고 있다.

차례	명칭	大正藏 권제46
1	법화삼매	697하, 698하
2	제불삼매	698상
3	부동삼매	701상
4	무명삼매	702하

그런데 이 책에서 거론된 것은 주로 법화삼매의 특징과 종류이다. 먼저 법화삼매의 특징은 법화경에 입학한 성불에 직결된 가장 빠른 수행법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법화경이라는 것은 대승돈각이며,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 빠른 성불도이다. 일체세간이 믿기 어려운 법문이다. 무릇 이 일체의 새로 배우려는 보살이 대승을 구하고, 일체의 모든 보살을 초과하여 빨리 성불도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지계·인욕·선정을 근수하고, 전심으로 법화삼매를 근학해야 한다.¹⁸⁾

그 다음에 제불삼매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 또한 법화경을 수학하여 얻는 삼매이므로 법화삼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17) 四種身威儀中坐最爲安隱菩薩常應跏趺端坐不動深入一切諸三昧門觀察一切衆生根性欲安立之令得解脫(卍續藏經98, 693下~694上)

18) 大正藏46, 697下

무상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법화경을 수학해야 한다. 심신으로 감로와 청정한 묘한 법문을 증득하고자 한다면 지계와 인욕을 행하고, 모든 선정을 수습하여 제불삼매를 얻으면 육근의 성품이 청정하게 된다.¹⁹⁾

이어서 법화삼매의 종류는 무상행과 유상행 총 2종이지만, 그 중에 무상행의 특징은 대치행이나 차체행을 닦을 필요가 없는 무사자연각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보살이 법화삼매를 배우려면 두 가지 수행을 구족해야 한다. 하나는 무상행이며, 두 번째는 유상행이다. 무상행은 사안락행에 의지하여 심심하고 묘한 선정으로 육정근을 관찰하고, 제법이 본래 깨끗하고, 중생의 성품이 때가 없으나, 또한 본래 깨끗하지 않음도 없어서 대치행을 닦지 않더라도 자연히 중생과 성인을 초월하고, 무사의 자연각을 얻는데, 차체행에 연유하지 않는다.²⁰⁾

이 외에도 무상행과 유상행의 구체적 방법을 설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법화삼매의 특징과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대승지관법문』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대승지관법문』에는 다음과 같이 진여삼매와 여환화등삼매 총 2종만 기술되어 있다.

차례	명칭	大正藏 권제46
1	진여삼매	654하, 655하
2	여환화등삼매	660하

그리고 구체적으로 ① 지관이 무엇을 의지하고, ② 지관수행의 경계는 어떤 모습이며, ③ 지관의 체상은 무엇이고, ④ 지관수행을 통해서 끊고 얻는 바가 무엇이며, ⑤ 지관의 현실적 작용을 밝히고 있다.²¹⁾

이 중에 진여삼매는 ① 지관이 의지할 바를 기술한 말미에 등장한다. 즉, 눈앞에 펼쳐진 현상 경계를 보지 않고, 사물의 명칭과 의미를 망상분별로 헤아리지 않는다면, 망상이 끊어

19) 大正藏46, 698上

20) 大正藏46, 698上

21) 就廣分別止觀門中作五番建立。一明止觀依止。二明止觀境界。三明止觀體狀。四明止觀斷得。五明止觀作用(大正藏46, 642上)

져서 사물에 대한 분별이 사라지는 바, 이것이 마음 자체가 고요한 가운데 사물의 현상을 관조하는 진여삼매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는 차원에서 설해지고 있다.²²⁾ 게다가 진여삼매는 ② 지관의 경계와 ③ 지관의 체상에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여환하등삼매는 ④ 지관의 斷得에 등장하는데, 依他性 가운데 관수행을 통하여 장애를 끊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체득하는 삼매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사종삼매의 성립과는 거의 무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5) 『남악사대사입서원문』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남악사대사입서원문』에도 총 2종의 삼매가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명칭	大正藏 권제46
1	석가모니불비문삼매	786중
2	수능엄경반주삼매	786하

그러나 본서에는 석가모니불의 비문삼매와 『수능엄경』의 반주삼매가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고, 다만 명칭만 나타나 있을 따름이다.

2) 혜사의 실천수행상에 나타난 삼매

혜사의 실천수행상에 나타난 삼매는 오도 이전과 오도 이후로 구분하여 시간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고찰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1) 오도 이전의 삼매

관정이 저술한 『수천태지자대사별전』에서는 오도 이전 혜사의 삼매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 때 혜사선사가 있었으니, 무진 사람이었다. 이름은 산봉우리보다도 높고 행은 강보다도 깊었다. 십년 동안 항상 독송하고(十年常誦), 칠년 동안 방등참법을 수행하고(七載方等), 구십일간 항상 앉아(九旬常坐), 일시에 원각을 증득하였다(一時圓證).²³⁾

22) 問曰 我今不觀境界 不念名義 證心寂慮泯然絕相 豈非心體寂照眞如三昧……(大正藏46, 654下)

23) 時有慧思禪師。武津人也。名高嵩嶺行深伊洛。十年常誦七載方等九旬常坐一時圓證(大正藏50, 191下)

여기에서 十年常誦은 도선(596~667)이나 담연(711~782)의 말처럼 10년간 『법화경』을 포함한 30여 권의 경전을 독송하는 수행방법이다. 七載方等은 방등삼매, 즉 방등참법을 7년 동안 수행하는 방법이다. 九旬常坐는 3개월 동안의 상좌삼매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혜사는 오도 이전까지 상좌삼매·법화삼매·방등삼매를 수행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2) 오도 이후의 삼매

오도 이후, 혜사가 천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삼매를 교시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별전』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혜사는 옛적에 영산에서 함께 법화경을 청문하였다. 숙연에 의하여 지금 다시 여기에 왔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즉시 보현도장에서 네 가지 안락행을 교시하였다. 2·7일간의 독송을 거쳐 약왕품에 이르렀다.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찬탄하였으니, 이것이 진실한 경진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한 범공양이라고 한다. 이 문구에 이르러 신심이 자연이 뚫려 교요하고 정에 들어 갔다.²⁴⁾

여기에서 4안락행이란 『법화경』 「안락행품」 제14에 나타난 신안락행·구안락행·의안락행·서원안락행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법화삼매의 무상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2·7일간의 독송은 바로 법화삼매의 유상행을 의미한다. 더욱이 혜사의 저서 『법화경안락행의』에는 법화삼매의 무상행과 유상행법, 『수자의삼매』에는 수자의삼매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선삼매가 가장 안락한 삼매형태이며, 해탈의 첩경임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혜사는 임종시 제자들을 운집시킨 연후에 법화삼매·반주삼매·염불삼매·방등삼매·상좌삼매를 수행할 것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만약 열 명의 사람이 신명을 아끼지 않고 항상 법화, 반주, 염불삼매, 방등참회를 닦고, 상좌고행하는 자가 있다면, 모름지기 그곳에 쫓아가서 내 스스로 공급하고 반드시 서로 이롭게 하리라.²⁵⁾

이처럼 혜사는 오도 이후 제자를 교회함에 있어서 상좌삼매를 외형적 수행형태의 근간으

24) 大正藏50, 191下

25) 『속고승전』 권제17, 大正藏50, 563下

로 삼고, 법화삼매의 수행법을 요체로 삼아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방등삼매, 수자의삼매, 반주삼매, 염불삼매 등 많은 삼매수행을 교시했다고 할 수 있다.

3. 천태 초기의 삼매사상

천태초기의 삼매사상은 와관사시대에 걸쳐서 행해진 초기 강설서와 저술서, 그리고 재가 시대부터 출가, 대현산과 대소산의 수행시기 등의 초기수행과정, 두 가지로 대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1) 초기의 저서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천태의 초기 저술서로는 점차지관을 강설한 『석선바라밀차제법문』과 부정지관을 기술한 『육묘법문』, 『석선바라밀차제법문』의 요약서인 『수습지관좌선법요』가 있다. 이 중에 『석선바라밀차제법문』은 『차제선문』, 『수습지관좌선법요』는 『소지관』으로 불리는데, 이들 가운데 나타난 4종삼매의 단초를 살펴보겠다.

(1) 차제선문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차제선문』은 천태의 와관사시대 강설을 법신이 기록하고 다시 관정이 개정보완하여 천태의 이름으로 편찬된 저술이다. 그 내용은 가장 얇은 선법에서 점차 깊은 선법을 실수해가는 점차지관의 수행방법을 설하고 있다. 본서에서 “수행자는 이미 선문의 형태를 안다. 보살은 초발심을 좇아내지 佛果에 이르는 선정을 수습해야 한다. 얇은 곳부터 깊은 곳에 이르는 점차적인 단계이니, 이 뜻을 알아야 한다. 지금 경론의 교의를 취하고 요약하여 차제법문을 편찬한 것이다. 그런 고로 대품반야경에서 보살마하살은 차제행·차제학·차제도라고 하였으니, 선정의 차제를 구별한 것이다”²⁶⁾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선정을 얇고 깊음에 따라서 ① 세간선 ② 역세간역출세간선 ③ 출세간선 ④ 비세간비출세간선의 4종으로 분류하였던 것인데, 이를 도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26) 大正藏46, 480上

세간선	사선
	사무량심
	사무색정
역세간역출세간선	육묘문
	십육특승
	통명관
출세간선	구상
	팔념
	십상
	팔배사
	팔승처
	십일체편처
	육신통
	십사변화
	구차제정
	삼삼매
	사자분신삼매
초월삼매	
비세간비출세간선	不說

위 도표에 의하면, 출세간선의 초월삼매까지는 대치무루에 속하며, 그 다음에 해당되는 출세간선의 연리무루와 비세간비출세간선은 不說이다. 이 비세간비출세간선이 바로 비유루 비무루법에 해당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족을 덧붙이고 있다.

네 번째 비유루비무루라는 것은 법화삼매·반주·염불·수능엄 등 백팔삼매·자성선 등 구중선·내지무연대자대비·십바라밀·사무소애지·십팔공·십력·사무소의·십팔불공법·일체중지가 이것이다.²⁷⁾

이 외에도 본서에는 일행삼매·관불삼매·각의삼매·무쟁삼매·관세음삼매·무량의처삼매·금강삼매 등을 설하고 있다. 따라서 사중삼매라는 명칭은 명백히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행삼매·관불삼매·법화삼매·각의삼매의 명칭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중삼매의 단초는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27) 大正藏46, 481中

(2) 『육묘법문』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진나라 상서령 묘희의 요청에 의하여 천태가 직접 저술한 부정지관에 대한 수행지침서는 『육묘법문』인데, 줄여서 『육묘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일행삼매·삼삼매·지륜삼매·수륜삼매·허공륜삼매·금사륜삼매·금강륜삼매·사자분신삼매·초월삼매·공삼매·무상삼매·무작삼매 등이 나타나 있다. 이 중에 사자분신삼매나 초월삼매·삼삼매는 4종선 가운데 출세간선에 속하며, 그 나머지는 대승불교의 삼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서에서는 ‘선’을 강조하고, 일행삼매라는 말이 나타나 있으나, 사종삼매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종삼매의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은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지관에 나타난 삼매의 종류

본서는 가형 진함을 위하여 대사가 직접 저술한 『차제선문』의 요약서이므로 삼매의 명칭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지 염불삼매·보현색신삼매·성경삼매·무량백천만억삼매의 명칭만 나타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지관수행법 가운데 좌선의 형태가 4위의 가운데 가장 수승한 방법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지관을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연에 의한 대상의 경계를 닦는 것이다. 첫째 앉아서 지관을 수행하는 것은 네 가지 위의 가운데 모두를 다 성취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앉는 방식이 가장 수승하기 때문에 먼저 앉아서 지관을 해야 한다.

또한 좌선의 형태로 관을 닦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수행자는 좌선시에 관을 닦는 인으로 마음이 활연히 깨달음을 얻게 된다”²⁸⁾ 그리고, 안이 비설신의 육근에 의한 색성향미촉법의 여섯 가지 객관 대상을 수행하는 對境의 지관방법에 행·주·좌·와·作作·언어를 열거하고 있다.²⁹⁾ 바로 이 행·주·좌·와·作作·언어는 삼매수행의 외형적 방법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태는 이런 방법론과 연계하여 대승불교에서 실한 수많은 삼매의 종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외형적 범주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28) 大正藏46, 467下

29) 一行二住三坐四臥五作作六言語(大正藏46, 467下)

2) 초기 수행상에 나타난 삼매

(1) 법화삼매와 방등삼매

지희는 양나라가 멸망한 이듬해, 부모의 상을 마치고 18세의 나이로 장사 과원사의 법서에 출가한다. 20세가 되자 강릉 보광사의 혜광율사에게 구족계를 받고, 형주 남경에 있는 대현산으로 장소를 옮기고 본격적인 수행생활을 시작하였다. 『무량의경』·『법화경』·『보현관경』의 법화삼매부를 독송하였고, 북량의 범중에 의해 번역된 대방등다라니경 4권에 입각한 방등참법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법화삼매는 독송위주로 수행하였고, 방등참법은 90일을 1주기로 삼아 12몽왕을 청하여 120편의 摩訶袒持陀羅尼를 외우고, 좌선에 들어가 실상을 사유하기 때문에 염송과 좌선을 겸수하였던 것이다. 『속고승전』권17에는 혜명도 『법화경』을 독송하고 방등참법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³⁰⁾ 혜사도 법화·반주·염불·방등을 비롯한 상좌고행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것³¹⁾은 물론, 『수천태지자대사별전』에서는 혜사 역시 10년간 『법화경』을 독송하고, 7년간의 방등참법, 90일간의 상좌삼매를 수행했다³²⁾고 한다. 따라서 당시에 법화삼매와 방등삼매는 널리 유행된 일반화된 수행법이었던 것이다.

특히 혜사는 법화삼매를 유상행과 무상행으로 체계화시켰다. 혜사의 저서 『법화경안락행의』를 보면, 전자는 『법화경』의 「보현보살권발품」 제28에 입각한 독송수행법이며, 후자는 「안락행품」 제14에 의거한 좌선수행법이다.³³⁾ 천태는 혜사의 가르침인 방등참법과 법화삼매의 유상행과 무상행을 겸수한 끝에, 마침내 법화삼매의 유상행에 의하여 「약왕보살본사품」의 문구를 독송하다가 활연히 개오했던 것이다. 더욱이 천태는 혜사가 교시한 방등참법, 그리고 법화삼매의 유상행과 무상행을 하나로 묶어 구체화·체계화시켰던 것이다. 바로 천태가 강설한 『방등삼매행법』 1권과 외관사에서 직접 저술한 『법화삼매참의』 1권이 그것이다. 천태는 이 두 가지 삼매수행법을 신구의 삼업과 연계시켜 형주 옥천사에서 강설한 『마하지관』의 4중삼매 가운데 반행반좌삼매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2) 각의삼매

『수천태지자대사별전』에 의하면 천태는 7세의 유소년기에 이미 『법화경』 「관세음보살보

30) 釋慧命. 姓郭. 太原晉陽人……年十五誦法華經. 兩句有半一部都了. 尋專剃洛學無常師. 全方等普賢等懺(大正藏50, 561上)

31) 若有十人不惜身命常修法華般若念佛三昧方等懺悔常坐苦行者.(大正藏50, 563下)

32) 大正藏50, 191下

33) 大正藏46, 700上~下

문품」을 암송했기 때문에³⁴⁾ 아마도 그 당시나 오래전부터 관음신앙이 점차 태동하였던 게 아닌가 추측된다. 그런데 17세 때 서위에 의해 양의 원제는 참수당하고 나라마저 멸망해버릴 정도로 전란의 비극은 극에 달았던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의 지의는 전란의 참혹함을 극복하려고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님께 끊임없는 기도를 올렸을 것이 틀림없다. 천태가 진원제의 태자인 영양왕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관음참법을 수행한 것이나 임종시에 관음을 영접하려고 했다고 『별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경백록』 권1에는 「청관음참법」이 수록되어 있다.³⁵⁾ 천태의 직접 저술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청관음경소』·『관음현의』·『관음경소』의 저술도 있으며, 천태삼대부의 하나인 『법화현의』 가운데 십묘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감응묘와 신통묘에서 관음보살의 자비를 극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의 당시에는 관음신앙이 태동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보편화된 신앙으로 정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음신앙은 『묘법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집역의 『묘법연화경』보다 120년 전 서진시대, 즉 서기 286년 경 축법호에 의하여 『정법화경』이 번역되면서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소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서기 406년경 『묘법연화경』이 번역된 이후의 남북조시대에는 세간에서 이미 관음신앙이 성대히 봉행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소산 입산 이전부터 천태는 관음참법을 수행했다고 보아도 좋다. 그렇다면 관음참법은 천태의 실천수행면에서 보이지 않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하지관』에서 관음참법이 각의삼매로 명명되고 4종삼매의 하나인 비행비좌삼매로 배정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3) 일행삼매와 반주삼매

위에서 언급한 법화삼매나 방등삼매, 그리고 관음참법은 좌선과 행선을 병행하는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행·주·좌·와·작작·언어의 어떠한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자의대로 수행하는 신체의 외형적 자세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대지도론』이나 혜사의 저술서, 천태의 초기 저술서에서는 좌선의 자세만을 취하는 일행삼매, 좌선의 자세와는 정반대인 행선의 자세만을 취하는 반주삼매가 기술되어 있다. 이 중 전자의 자세는 석가세존을 시작으로 대소승불교는 물론, 모든 선정과 삼매수행의 기본자세에 해당된다. 혜사가 『수자의삼매』 육위품 중 「좌위의품」에서 “보살은 항상 결가부

34) 大正藏50, 191中

35) 大正藏46, 795中~796上

좌를 하고 움직이지 않고 일체의 모든 삼매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한 것이나 천태가 초기 저술서인 『차제선문』·『소지관』·『육묘법문』에서 좌선의 자세를 가장 수승하고 편안한 자세라고 역설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러한 좌선법은 점차 체계화되어 『마하지관』에서 사종삼매 가운데 맨 첫번째에 해당되는 상좌삼매로 명명되었고, 일행삼매로 규정되었으며, 그 경증으로서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과 『문수문사리경』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반주삼매는 불입삼매라고도 한다. 항상 행선의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사종삼매 가운데 상좌삼매로 편성하였으며, 그 경증으로서 『반주삼매경』1권본과 3권본을 거론하고 있는데, 『십주비바사론』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이처럼 일행삼매와 반주삼매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 특징상 각각 상좌삼매와 상행삼매로 편성되었지만, 수행기간이 모두 90일을 1주기로 한정한다는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Ⅲ. 나오는 말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몇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소승의 모든 선·정·삼매는 천태지역에 의하여 최초로 4종삼매로 총합되고 통일되었다. 용수의 『대지도론』에는 원시불교와 아비달마불교의 선·정·삼매나 대승불교의 삼매에 대한 명칭이 자세히 나타나 있으나, 이들을 단순히 성문법중삼매와 마하연법중삼매 2종으로만 구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지도론』의 분류를 수용한 천태는 이를 내용적 측면에서 다시 총합하였다. 『차제선문』에 나타난 세간선·역세간역출세간선·출세간선·비세간비출세간선의 4종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4종선만으로 대소승의 모든 수행법과 삼매법을 통섭할 수는 없었다. 선과 삼매의 의미는 어의상 같을지라도, 원시불교와 아비달마불교,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보는 시각적 의미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시각을 불식하는 차원에서 천태는 제삼자가 보아도 수궁할 수 있도록 천태 이전까지의 모든 불교수행법을 4종삼매로 총합·통일하였던 것이다.

둘째, 천태의 4종삼매의 성립에는 『대지도론』과 스승 혜사의 가르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지도론에는 백팔삼매, 일행삼매와 불일행삼매, 염불삼매와 각의삼매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혜사나 초기천태의 저서에는 4종삼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으나, 혜사의 저서인 『제법무쟁삼매』에는 좌선법과 행·주·좌·와·식·어위의, 『법화경안락행의』에는 유상행과 무상행, 『수자의삼매』에는 비행비좌법 등이 산발적으로 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태는 『대지도론』과 혜사의 가르침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아, 이러한 삼매법을 직접 수행하고 연구하면서 천태산에 입산한 생의 후반기에 사중삼매로서 체계화시켰던 것이다.

셋째, 천태의 4종삼매의 성립에 의하여 모든 신앙형태까지도 마침내 삼매수행법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참회법과 칭념염불은 물론, 경전독송과 관음신앙을 비롯한 크고 작은 모든 신앙형태조차도 신·구·의 3업의 외면적 형태에 따라서 모두 4종삼매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제법실상의 구극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중삼매는 바로 법화삼매의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중삼매는 명칭이나 외형적 규정(事蹟)이 각기 다를지라도 한결같이 제법실상의 체득(理識)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중삼매는 사참에 의한 분류일 뿐, 한결같이 동일한 이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광의적 의미에서 법화삼매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